

석유화학, 1/4분기 영업이익 급감

에프앤가이드, SK이노베이션 34.9% 감소 ... LG화학도 16.7% 줄어

2012년 1/4분기 국내 상장기업들은 고전이 불가피하고, 특히 고유가와 각종 수수료 규제로 정유, 통신, 유통, 철강 등은 부진이 예상된다.

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, 113개 대형 상장기업의 1/4분기 매출액(IFRS 연결기준) 예상치는 361조5000억원으로 2011년 1/4분기 330조6000억원에 비해 9.4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반면, 영업이익은 25조7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으로 8.3%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IT(19종목)의 영업이익은 5조원으로 38.3% 증가하고 필수소비재(7종목)는 11.4%, 경기소비재(22종목)는 11.4% 늘어나는 반면, 통신서비스(4종목)는 25.7% 줄어들고 에너지(4종목) 27.9%, 소재(16종목) 39.6%, 산업재(36종목) 22.9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에너지, 소재, 산업재 부문의 1/4분기 영업이익은 2011년 4/4분기보다는 각각 61.9%, 24.6%, 18.2%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정유·석유화학은 전망이 밝지 못한 편이다.

SK이노베이션은 1/4분기 영업이익이 7756억원으로 34.9%, LG화학은 6956억원으로 16.7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15>